

# 김필수(金弼秀) 목사의 성찬관 분석 그의 “球上無比의 紀念”(1922)을 중심으로

---

**안수강**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역사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성찬예식의 교의적 함의
- III. 성찬예식의 실천적 함의
- IV. 나가는 말

**[초록]**

본 연구는 김필수(金弼秀) 목사의 설교문 “球上無比의 紀念”을 통해 그의 성찬예식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여 이 글을 작성했다. 김필수의 성찬예식에 대한 논점은 단지 “球上無比의 紀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글은 1922년에 발행된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에 게재되어 있다.

김필수의 성찬관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찬예식이 갖는 고유한 상징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했으며, 그 내용들로서 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선민을 위한 대속, ② 하나의 교회(교회의 보편성)로서의 참 정체성, ③ 성찬예식에서의 접속사 ‘그러므로’(οὕτως: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의 구도가 갖는 교훈점 등에 대해서 논했다.

둘째, 성찬예식의 실천적 함의에 대하여 살폈으며 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 ②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적인 삶, ③ 이타적이며 헌신적인 삶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 부연하여, 본 연구자는 추후 김필수 목사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확장되어 이 주제 외에도 ‘YMCA 청년운동’, ‘사회운동과 계몽운동’, ‘목회윤리에 대한 관점’, ‘그의 출판 활동’ 등 여러 연구로 외연(外延)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성찬예식, 기념비, 헌신, 순교

논문투고일 2019.06.27. / 심사완료일 2019.08.14. / 게재확정일 2019.08.29.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김필수(金弼秀, 1872-1948) 목사가 1922년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sup>1</sup>에 발표한 희귀본 “球上無比의 紀念”<sup>2</sup>을 고찰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그의 성찬관을 분석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자료는 그의 성찬관을 분석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료라는 점에서 신학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1919년 전국적으로 삼일독립운동이 일어나 5월 무렵까지 지속되었으나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의 이상과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독립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武斷) 식민정치 체제에서 소위 문화정치(文化政治)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런 조치는 한국인들을 점진적으로 일본 국체에 동화시키기 위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책략에 불과했다. 당시 개신교 진영 역시 한국에 일본 조합교회가 진출하여 일제 종교정책에 흡수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있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대적 정황에서 김필수 목사는 성도들이 올곧은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면모를 갖추 수 있기를 염원했다. 특별히 그는 이러한 간절한 기원이 담긴 글 “球上無比의 紀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신 최후의 만찬에 함축된 교훈에 천착(穿鑿)함으로써 한국기독교의 일체성을 추구하고자 했고 참회하는 신자상,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적 삶, 이타적 사랑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히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에는 기고자 20인 중 길선주, 박동완, 박희도, 정춘수, 신석구, 이필주, 김창준 등 기독교계 삼일독립운동 민족대표 16인 중 무려 7인의 글이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기독교 정체성 정립을 의도한, 매우 촉박했던 발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민경배는 삼일독립운동 이후 당시 개신교가 암흑과도 같은 비극의 길을 걸던 시기였으나 교회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영적 진흥과 교육 진흥 등 여러 방면에서 갱신된 신앙을 보여주었으며 위대함과 우월성, 도덕적 용기를 여실히 증명했다고 높게 평가했다.<sup>3</sup>

1 한석원 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2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한석원 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 58-66. 이하 각주에서는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으로 표기함.

김필수는 1872년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했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선교사와 교분을 갖고 그의 추천으로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선교사의 어학선생이 되었으며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가 창설될 때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 12명 이사들 중 한 사람으로 봉사했다. 이후 완산교회 장로로 장립 받았고 1909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1911년부터 1915년까지 군산 개복동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했다. 1915년 장감 연합 『基督申報』를 창간할 때 편집을 맡았으며, YMCA 주일강사와 사경회강사로도 활동했다. 1915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장로회 제 4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918년 조선예수교장로연합회의가 결성되었을 때 초대 회장직에 취임했다. 또한 『基督申報』와 『靑年』 주필로서, YMCA 지도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기독교 문서분야에서 활동의 폭을 넓혔다. YMCA 전도단 순회를 통해 금주, 금연, 절제,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는 등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일제 말엽에 모든 직무에서 은퇴한 후 1948년 10월 30일에 소천했다.<sup>4</sup>

김필수의 글 “球上無比의 紀念”이 수록된 단행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은 1922년 경성부 수송동에 위치한 활문사서점(活文社書店)에서 발행되었다. 출판 시점은 책 뒤편 문헌정보에 ‘大正 十一年 七月 十三日’(明治 다음 연호)이라고 인쇄되었으며 환산하면 주후 1922년도에 해당된다. 당시 YMCA 저널 『靑年』 편집자 한석원이 이 강연집 출판을 위해 20편의 글들을 242페이지 분량으로 엮었고,<sup>5</sup> 한 단 내려쓰기 활자체로 인쇄되었다. 인쇄자는 김중환, 발행자는 양재기이며, 인쇄는 경성부 공평동에 소재한 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

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65-66.

4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3권)』(서울: 기독교문사, 1994), 308. ‘김필수’ 항목; 김필수 목사가 총회장직에 선출된 1915년 장로회 총회 관련 주요 사항들로서 만국주일학교대회 대표 2인 일본 파송 결의, 『基督申報』 창간, 서간도와 북간도의 교세 통계 처리(교회: 67개 처, 교인: 5,739명), 재정난으로 인한 『예수教會報』 폐간 등이 있다. 이재영 편,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무국, 2006), 11. 김필수의 군산 개복동교회 시무연도는 다음 문헌을 참고했다. 차재명,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上)』(京城: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1928), 275; 양전백 외 2인,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下)』이교남 역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301.

5 이 무렵 한석원은 『靑年』의 편집자였고,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에 “責任의 自覺”을 발표했다. 한석원, “責任의 自覺”, 한석원 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 1-14.

社)에서 맡았다. 이 강연집을 고찰한 논문으로 유일하게 2018년에 「신학과 실천」에 실린 한경국의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는 이 강연집에 수록된 20편의 글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용어’, ‘설교문 구성’, ‘설교유형’, ‘절기설교’ 등을 살펴 후속 담론과 연구를 위한 기초를 놓았다.<sup>6</sup>

김필수의 글 제목 “球上無比의 紀念” 상단에는 사각 형태의 작은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소속과 직책은 담임목회자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여 ‘朝鮮예수敎長老會牧師’라고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는 기독교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YMCA 청년 지도자로서 특수 분야 사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설교제목 하단에는 작은 글씨체의 ‘=聖餐說教=’라는 문구가 별도로 부연되어 있다. 그는 성경본문을 성찬예식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선정하여 이 설교문을 작성했으며 자신의 신학적 소신을 담아 성찬관을 전개했다. 본 연구는 김필수가 남긴 단편 설교문을 중심으로 그의 성찬관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사료상의 한계점이 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로는 김필수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초기 목회활동과 더불어 이후 「基督申報」의 주필로서, YMCA 월간지 「靑年」의 편집인으로서, YMCA 지도자로서, 기독교서회 편집부원으로서, 그리고 장로교 첫 한국인 총회장 사역 등을 통해 공헌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그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지 않았던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이 논문은 지속적으로 그가 남긴 신학사상 관련 자료들을 발굴하고 후속 담론을 고취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 논문에서 다룬 김필수의 성찬관은 그가 남긴 희귀본 성찬설교를 통해 조명해볼 수 있는 독창적 논제라는 점이다. 그가 남긴 “球上無比의 紀念”은 1922년도에 발표된 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예식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교의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가 함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6 한경국,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61권 (2018), 147-74.

날 개신교인들이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시의성 있는 가르침을 준다는 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설파한 성찬예식에 관한 논지들을 ‘제2장: 교의적 함의’와 ‘제3장: 실천적 함의’로 대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성찬예식의 교의적 함의

김필수는 성찬예식을 논하기 전,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동서양의 수많은 영웅열사들을 기념하는 공덕비(功德碑)가 세계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기념비들은 이들 영웅들이 자의로 세운 것들이 아니며 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행적을 기리고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한 역사적 기념물이다. 그는 고려 말 충신 정몽주(1338-1392), 임진왜란 해전을 평정한 이순신(1545-1598), 진주성 논개(-1593) 등의 충정을 기리기 위한 비문들이 세워져 있고,<sup>7</sup> 해외 인물들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1805년 트라팔가(Trafalgar) 해전에서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이 이끄는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물리치고 영국을 구한 넬슨(Horatio Nelson, 1758-1805) 제독 등을 위해 단장한 거대한 규모의 기념 비석들이 있다고 했다.<sup>8</sup>

그러나 김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는 단연 독보적이라고 했으며 최상의 모범이 되는 보적(寶迹)으로 보았다. 이 기념비는 후세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점에서도 독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남기신 독보적 기념비가 무엇인가? 그가 제정하여 세우신 성찬예식이 바로 ‘구상무비의 기념’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영웅열사의 기념물도 감히 이에 비견할 수 없으며 추종을 불허하는 지고의 기념비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확인했는가? 여기에는

7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58.

8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59, 66.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고귀한 교의적 함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성찬예식이 함축한 대의를 논증했다. 첫째, 이 성찬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대속을 보여주는 의식이요 둘째, 보편적 교회로서의 증표가 된다는 점이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보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운’(οὖν, therefore)의 연계도식을 보여준다고 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대 인격’: 무죄성과 대속

김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웅열사들의 인격과 구분하여 “空前絶後(前無後無-본 연구자 주)의 大人格”<sup>9</sup>이라고 칭송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전절후의 대 인격과 그가 제정하신 성찬예식을 직접 연계하여 유기적 인과율(cause and effect)을 적용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예수님의 대 인격과 성찬예식을 논하면서 굳이 양자 사이에 인과율을 적용하고자 했는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대속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성찬예식에서의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살과 피를 내다보는 거룩한 구속의 상징성을 갖는다. 과거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와 멜랑흐톤(Philip S. Melancthon)이 법정적 칭의(forensic justification) 도식<sup>10</sup>을 통해 죄인에게 선포되는 의를 법정의 정황을 설정하여 규명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에 비해 김필수는 무엇보다도 무흠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대 인격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대속의 차원 그 자체를 강조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그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은 그의 대 인격과 동일시되는 동질의 표현이다. 그리고 무흠하신 대 인격은 성찬예식에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에 직결되는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속성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그가

9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63.

10 교부 어거스틴(Augustine)은 칭의의 관점을 논할 때 의롭게 여겨진다고 이해했지만, 루터와 멜랑흐톤의 법정적 칭의 관점에서는 의의 전가(imputation) 또는 수동적인 의(passive righteousness)가 선포된다는 차원이 강조된다.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84. cf. Philip Melancthon, *Commentary on Romans*, trans. Fred Kramer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2), 71-73.

성찬예식을 가리켜 현 시대의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최상의 기념비라고 단정했던 것은 바로 이 예식 속에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복음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다 모혀서 썩을 썰이며 葡萄汁을 마셨습니다. 이 이상의 도흔(좋은-본 연구자 주) 記念은 업습니다. 그 記念은 空前絶後의 大 人格 엇든 곳을 調査하아보든 지 조금도 흠이 업스시며 缺點이 업스신 그리스도는 無情한 손의 十字架에 미달니었습니다. 그러나 못 박혀서 이 世上을 써나시게 된 것은 이 人類를 罪와 더러운 中에서 救援하야 至聖한 者가 되게 하시라는 生覺으로 하신 것입니다.<sup>11</sup>

김필수는 이 세상의 영웅열사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설립된 후세 기념비들이 그들의 업적과 자취를 빛나게 해주지만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는 흰 조각의 썩 흰 목음의 葡萄汁으로써 記念으로써 세상의 모든 기념비를 능가하며 혁혁한 구속의 공로를 증거한다고 했다.<sup>12</sup> 김필수의 이 논증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이 배병(配餅)과 배잔(配盞) 두 절차로 구성된 성찬예식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보편적으로 배병과 배잔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회상하게 해주는 성찬예식이라는 점에서 이 예식에 참례한 신자라면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대속의 의미를 음미하여 감격할 것이며, 그의 죽으심에 초점을 두어 묵상할 것이다. 그러나 가시적 표징으로서의 떡과 잔을 통하여 그 본체가 되시는 불가시적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속성까지 깊숙하게 관철해내기란 쉽지 않다. 김필수는 이 배병과 배잔으로 구성된 거룩한 예식절차에 대해 각별히 “조금도 흠이 업스시며 缺點이 업스신 그리스도”라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이 무죄성을 논거로 삼아 “人類를 罪와 더러운 中에서 救援하야 至聖한 者가 되게 하시라는”이라는 대속의 논리를 도출해냄으로써 복음을 깊이 있게 투사하는 혜안(慧眼)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의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하심(대 인격)→대속의 죽음(살과 피)→죄로

11 김필수, “球上無比의 記念”, 63.

12 김필수, “球上無比의 記念”, 66.



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음적 관점에 입각하여 정제(精製)된 도식을 보여준다.

개혁자 칼빈(John Calvin)은 복음서에 기록된 성찬예식을 해석할 때 가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ism) 논쟁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리고 그가 초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언약신학 관점으로 귀결된 복음이었다. 그는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중략) 피니라”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시는 피’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제사’를 성만찬에 직결하여 설명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무죄하신 자가 유죄한 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친다는 대속의 복음적 취지를 고양하고자 했다.<sup>13</sup> 칼빈의 논지에서 희생제사란 희생양이 성부 하나님께 보속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무이한 중보자는 오로지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sup>14</sup> 김필수의 성찬논증은 희생, 제물, 제사, 죽으심, 피의 개념으로 규정된 칼빈의 복음적 관점에서의 성찬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 2. ‘보편적 교회’로서의 증표

김필수의 성찬관에 나타난 두 번째의 중요한 교의적 의미는 성찬예식이 교회의 보편성과 일체성을 규정짓는 최상의 증표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보편성 혹은 일체성이란 수많은 교회들이 외견상으로는 지상의 여러 곳에 흩어져 다양한 양태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하나의 교회(one church)로서 질적 통일성을 지향한다는 가치를 천명한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 of Lyons, 2-3C)는 당대 이단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Against Heresies”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들이 전수해준 사도적 신앙(apostolic faith)과 파라도시스(παράδοσις)로서의 사도적 전통(apostolic tradition)을 내세웠다.<sup>15</sup> 그는 후일 키프리

13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III) and The Epistles of James and Jude*, trans. A. W. Morris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138-39(마가복음 14:24 주석).

1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14. 21, 1297-98.

15 Irenaeus, “Against Heresies”, in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 Cyril Charles Richard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10. 2, 360.

아누스(Caecilius Cyprianus, 3C)가 교회의 보편성의 근거를 논함에 있어 베드로의 교좌(敎座)를 초석으로 본 견해<sup>16</sup>와는 분명하게 관점을 달리한다. 칼빈은 공회(catholic) 혹은 보편적(universal) 의미로서의 교회란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를 주장했다. 바로 이 점에 근거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와 어떠한 구원도 바랄 수 없다고 단정했다.<sup>17</sup> 근래 가톨릭 측에서는 종교개혁 시기에 고조되었던 베드로 수위권을 가급적 온건하게 표현하고 점차 교황과 사제들의 봉사와 섬김의 차원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sup>18</sup> 그러나 박도식 신부가 밝혔듯이 “으뜸 제자에게 복종하면서 교회의 획일적이고 통일성 있는 하나의 교회를 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열 두 제자 중 베드로를 당신 교회의 총책임자로 임명하셨습니다”<sup>19</sup>라는 대의명분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이 논리를 내세워 여전히 베드로의 교좌가 지상교회의 보편성과 일체성을 보증하는 뿌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김필수는 성찬예식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교회의 보편성과 일체성의 의의를 논했다.

世界의 모든 敎會 잇든 敎會가 建設이 되엇든지 五人 十人の 그리스도 信者가 잇는 곳에는 다 모혀서 다 모혀서 썩을 썩이며 葡萄汁을 마셨습니다.<sup>20</sup>

그리스도는 무덤도 업스시고 碑石도 업슬지라도 몇 千萬의 信者의 무음속에 낫지 못할 記念을 미쳐주었습니다. 그 信者가 두 달에 한 쵸 或은 한 週日에

16 Caecilius Cyprianus, "The Unity of the Catholicism", in *Early Latin Theology*, trans. Justin McCan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142(Appendix: The Primary Text of De Unitate). 키프리야누스는 사도들 중 교좌의 우선권은 베드로에게 주어졌으며 교회가 설립된 기초인 베드로의 교좌(the chair of Peter)를 버리는 자, 그가 '교회 안'(in the church)에 있다고 믿는가라고 질문했다.

1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 IV. 1. 2, 1014.

18 cf. Hans Küng, *The Church* (New York: Sheed and Ward, 1967), 444-80("The Petrine power and the Petrine Ministry").

19 박도식, 『가톨릭 사상강좌』(서울: 가톨릭출판사, 1985), 195.

20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63.

흔 番식 모혀서 썩을 떼여 먹으며 葡萄汁을 부어 마시며 그 씨에 싣든지  
 도트지(싫든지 좋든지-본 연구자 주) 主 예수 끼서 人類를 爲하야 살을 찌즈섯  
 스며 피를 흘니시게 된 것을 記念히지 안을 수가 업게 되엿습니다. 엇든  
 宗派(가령, 무교회주의-본 연구자 주)에서는 聖餐을 직히지 안기도 합니다.  
 그러홀지라도 世界 全體의 信者에 比하야 볼 것 고하면 그것은 極히 少數이오  
 全體의 信者로서는 거이 다 이것을 직히는 것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무음속에.<sup>21</sup>

김필수는 몇 천만의 신자 혹은 세계 전체의 신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보편성과  
 일체성을 성찬예식에서의 떡과 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찾았다. 그 근거는 앞서 제 1항에서 논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  
 인격: 무죄성과 대속’이 그 초석으로 설정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 인격은  
 무죄성에 있고, 그 무죄성에 의해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희생양이 되실 수 있었다  
 는 복음적 관점이 하나의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가늠하는 중핵이 된다. 교회의  
 보편성 및 일체성과 관련하여 이레니우스가 ‘사도적 신앙과 전통’을,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 안’<sup>22</sup>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보여주었다면, 이에 비해 김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구체성을 띤 미시적 차원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견지했다. 따라서 김필수가 생각하는 교회의 하나 됨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저로 하는 복음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투사된다.

### 3.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운’(οὖν)의 교훈

신약성경에서 자주 접속사로 등장하는 헬라어 ‘운’(οὖν)은 ‘그러므로’ 혹은  
 ‘따라서’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의 기능을 갖는 용어이  
 다.<sup>23</sup>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칭의교리와 성화론의 양 지평을 접속하기 위해

21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65.

22 물론 칼빈이 참 교회의 표지를 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권징을 비중 있게 다룬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관점들 또한 교회의 보편성과  
 일체성을 논한 것으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 IV. 1. 9, 1023-24; 1. 11, 1025; 7. 23, 1142-43. cf. 안수강, “신사참배 회개론  
 유형별 연구”, 『한국개혁신학』 제42권(2014), 41.

23 William Greenfield, *The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구사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로마서 12장 1절을 들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οὕτως)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실천적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신자들은 마땅히 칭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신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쳤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김필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의 삶과 피를 기념하여 땀과 눈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자의 ‘보답’ 양자는 접속사 ‘운’(οὕτως)으로 면밀하게 연결된다.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쓰르신 몸(뺏으신 몸-본 연구자 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記念하기 爲하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生命까지라도 몽둥이에 마즌 이가 적지 않을 줄노 生覺을 합니다. 이것은 卽 球上無比의 記念 ... 記念碑가 아님닛가? 碑石을 세워서 무엇을 흠닛가?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쓰르신 몸 흘리신 피를 記念하는 것이 第一 重要한 것입니다. 아- 고마오신 ... 고맙다고만 할지라도 所用이 업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좌최를 사른다 하는 큰 決心으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sup>24</sup>

위에 기술한 인용문에서 김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생각하는 성찬 예식을 기념하면서 “生命까지라도 몽둥이에 마즌 이”, “그리스도의 발좌최를 사른다 하는 큰 決心”을 기록한 대목은 의미상의 접속사 ‘그러므로’가 엮어내는 격정적 감동을 자아낸다. 그는 신자가 마땅히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그러므로 은혜에 사례(謝禮)하여 그가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의 보적을 기쁜 마음으로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 III. 성찬예식의 실천적 함의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132. ‘οὕτως’ 항목.

24 김필수, “球上無比의 記念”, 64-65.

김필수는 성찬예식의 교의적 함의를 논증한 데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신자들이 이 성찬예식을 통해 반드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했다. 그는 단순하게 성찬예식이 갖는 이론적 탐구 혹은 이 예식이 기록된 성경본문을 주석만 하는 학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신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현상적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인지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었다. 성찬예식을 통해 그가 구상한 실천적 함의는 ‘참회의 결단’, ‘주님을 위한 순교의 삶 결단’, 그리고 ‘이타의 헌신적 삶 결단’ 등 세 방면에서 두드러진다.

## 1. 참회의 결단

김필수는 성찬예식을 통해 참회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가 이 점을 중시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예식이 기록된 내용을 본문으로 설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1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신자들이 먼저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교훈한 말씀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찬예식에 대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신자상을 결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코람데오(Coram Deo), 즉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갖춘 참된 신자상이라고 확신했다. 칼빈은 성례전 시행과 관련하여 하나님 측에서는 그의 선하신 약속을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징이지만 신자들 측의 입장에서는 그 외형적인 표징에 의해 주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대한 경건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sup>25</sup> 또 성찬 참례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임하는 경우 이를 엄중하게 신성모독죄(sacrilege)로 단정했을 정도로 중대 사안으로 다루었다.<sup>26</sup> 무엇보다도 경건은 참회가 기점이 되며 참회가 선행될 때 진정한 경건으로 외연될 수 있다. 김필수가 성찬예식을 참회의 결단을 요구하는 표징으로 본 것은 칼빈이 주장한 경건의 개념과 밀접하게

2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 IV. 14. 1, 1276-77.

26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trans. John W. Fras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252(고린도전서 11:28 주석).

교섭된다. 김필수는 신자 자신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세울 것을 교훈하면서 회개하는 신자상 그 자체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세우는 숭고한 기념비가 된다고 호소했다.

그리스도의 記念碑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 記念碑를 만든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자기 속에 犯罪한 生靈이 날 것 같으면 그 썩을 먹고 葡萄汁을 입에 디이기 前에(대기 전에-본 연주자 주) 「主여! 聖神의 힘으로써 이기기 어려운 惡癖을 이기게 勸소시켜」 祈禱하고 打算할 수 없는 큰 決心으로 이 聖餐禮式에 參例하게 되면 이것이 卽 그리스도를 記念하는 本意가 아닐가 합니다.<sup>27</sup>

그는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만일 누구를 지목하여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든지, 혹 저주하거나 시비를 걸어 논쟁한 사실들이 생각나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는 일부러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바로 이러한 순결한 품성이 그리스도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룩한 열매가 된다고 했다.<sup>28</sup> 이 회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聖神의 힘으로써 이기기 어려운 惡癖을 이기게 勸소시켜”라고 기도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성찬예식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그는 신자 자신이 행한 범죄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극복하고 일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로써 성찬예식과 관련하여 그가 주장한 참회의 결단은 작은 틀에서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spiritual presence)의 궤적을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은 회개에 대해 생활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육의 죽임과 영의 살림을 지향한다고 했다.<sup>29</sup> 특별히 성찬예식을 논할 때는 성례전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필히 내적 교사인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고<sup>30</sup> 만일 성령께서 성찬예식에

27 김필수, “球上無比의 記念”, 65-66.

28 김필수, “球上無比의 記念”, 66.

2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3. 6-8(598-600면).

3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 IV. 14. 9, 1284-85.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의식은 더 이상 아무런 유익도 바랄 수 없다고 단언하여 영적 임재설의 의의를 피력했다.<sup>31</sup>

## 2. 주님을 위한 순교의 삶 결단

김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찬예식을 통해 순교의 삶을 결단하는 예식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가까운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순교한 사례들과 끼니를 거르며 굶주리는 한국인 목회자들, 과거 30여년에 걸친 정부의 정략적 핍박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신자들은 성찬예식을 통하여 순교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支邦(중국 본토를 가리키는 ‘支那’의 오자-본 연구자 주)에서 宣教師는 멧 番式 暴徒의게 죽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도 만히 피를 흘린 그리스도 信者의 數ぞ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三十여 年前에는 그리스도教를 甚히 迫害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업다고는 못홀지라도 ... 傳道하는 教役者 中에는 만흔 食率이 薄俸으로 生活할 수 업서 聖職을 辭免한 것은 不抱고려도 食物缺乏으로 困하야 饑死한 이도 업다할 수가 업습니다. 只今은 그 墓標가 우리 宗教界에 외로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事實이을시 다.<sup>32</sup>

한국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말 기독교 전래와 더불어 핍박의 역사가 어우러져 전개되었다. 개신교가 전래되기 이전만 해도 조선 천주교는 사상적, 사회적, 정치적 사유들이 교묘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유교 체제와 정통에 대한 도전이라는 죄목으로 정조 말부터 흥선대원군 섭정 집권기까지 무려 80여년에 걸쳐 모진 핍박을 받았다. 초기의 큰 교난으로는 1801년 정약중, 이승훈, 권철신 등 천주교 1세대가 멸문지화를 당한 신유교난(辛酉教難)이 일어났고, 중기 교난

3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 IV. 14. 17, 1292-94. 성찬과 관련하여 칼빈이 강조한 신자들과 구원자의 전 인격과의 신비적 교제는 영적 임재설에 근거한다. cf.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653-54.

32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64.

으로는 정하상이 순교한 1839년 기해교난(己亥教難)과 1846년 김대건이 순교한 병오교난(丙午教難), 연이어 후기 교난으로는 1866년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반영된 병인교난(丙寅教難)이 발발했다.<sup>33</sup> 신유교난에는 300명 이상, 기해교난에는 100명 이상, 병인교난에는 적어도 8천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처형되었다. 미국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과 언더우드, 미국 북감리교 소속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가 입국하던 1884년 내지 1885년 무렵에도 한국 내에서의 선교는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나마 교육과 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간접선교를 통한 전도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sup>34</sup> 1900년을 전후하여 몇 차례 교회에 심각한 핍박이 가해졌으며, 1898년 6월 10일 조선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전교 명분으로 인전교사(因傳敎事, 護照)를 발행해줌으로써 이때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sup>35</sup> 김필수가 이 글에서 30여 년간의 핍박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개신교가 전래된 1880년대 중반부터 개신교를 대상으로 전개된 대소사의 핍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890년까지 개신교를 대상으로 전개된 핍박은 천주교 측의 고지대 성당 건축으로 인한 고종의 전도금지령(1888), 외국인들이 어린이들을 납치한다는 무고(1888), 덕천부사 신덕균의 박해사건(1894), 길영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보부상들이 정부의 사주로 독립협회를 탄압한 일(1898), 전차 이용과 결부된 경무사 김영준의 핍박(1899), 천주교 측의 개신교 핍박과 동학 측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었다.<sup>36</sup> 위의 인용문장 가운데 “오날(일제가 통치하는 시기-본 연구자 주)도 업다고는 못홀지라도 ...”라고 기록된 부분은 김필수가 후미 부분을 자의로 생략 처리한 것이 아니라 총독부가 검열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 공란 방식으로 남겨둔 것이다.<sup>37</sup> 추측하건데 공란

33 Jai Keun Choi, *Early Catholicism in Korea* (Seoul: Handl Publishing House, 2005), 99-121, 149-9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70, 78, 95.

34 cf. 안수강, “알렌의 일기를 통해서 본 제중원(濟衆院) 의료선교사역—의료사역의 ‘순항과 난항’ ‘선교사적(宣敎史的)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0권(2016), 115-23; 안수강, “李樹廷의 「信仰告白書」와 「宣敎師派送呼訴文」 문헌 분석”,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3권(2012), 183-84; 안수강,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의 ‘사적’ 문헌을 통해서 본 교육선교”,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3권(2016), 105.

3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9.

36 cf.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77-88.



처리된 부분은 일제가 기독교에 압력을 가한 사례들을 우회적으로 암시하여 비판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

### 3. 이타(利他)의 헌신적 삶 결단

김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예식의 실천적 의미를 헌신의 삶으로 외연(外延)하여 적용하고자 했다. 그가 말하는 헌신은 선한 의지로써 고난을 자원하는 삶을 가리킨다. 그가 토로한 아래 인용문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양태의 고난을 포괄하고 있다. “마즐지라도 뚫습니다” 이 문장은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감수하려는 결단을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爲ᄃ야 ㅅㅅ을 흘니여야 ᄃᄃ겠습니다”는 문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수하는 고난 이자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물과 땀이 뻘 고통의 길을 보여준다. “好衣好食ᄃ며 ㅅㅅ히 날을 보니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목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고고한 금욕정신을 갖출 것을 교훈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로서 뜨겁게 입고(따뜻하게 입고-본 연구자 주) 쏘 어디까지 好衣好食ᄃ며 ㅅㅅ히 날을 보니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ㅅㅅ 큰 人格이 十字架 위에서 몸을 씻게 될 것 ㅅㅅ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爲ᄃ야 몸을 쓰저도(씻어도-본 연구자 주) 關係가 업겠습니다. 마즐지라도 뚫습니다(좋습니다-본 연구자 주). 목숨을 다ᄃ여야 ᄃᄃ겠습니다. 적드러도(적 더러도-본 연구자 주) 그리스도를 爲ᄃ야 ㅅㅅ을 흘니며 눈물을 흘니며(흘리며-본 연구자 주) 피를 흘린 수가 업슬지라도 ㅅㅅ을 흘니여야 ᄃᄃ겠습니다.<sup>38</sup>

그렇다면 김필수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적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 그는 신자들에게 사회에 침투하여 확산해가는 이타의 헌신을 촉구했다. 그는 “이 ㅅㅅ과 눈물이 모히고서야 敎會가 發達ᄃᄃ 썬

37 김필수의 글 “球上無比의 紀念”뿐 아니라 다른 저자들이 작성한 설교문에도 전개과정에 간혹 “.....” 방식으로 처리한 곳들이 있다. 이는 총독부에서 출판 문서를 검열할 때 삭제한 흔적을 보여준다. cf. 김영수, “이 影印本을 내면서”, 한석원 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 영인본 서지정보 뒷면.

38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63-64.

아니라 孤兒院이 設立이 되며 救貧院이 생기며(생기며-본 연구자 주) 癩病院이 設立이 되어 到處에 慈善事業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합니다.”<sup>39</sup>라고 하여 교회 밖 사회현장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타의 선을 실천하는 신자상을 구현해갈 것을 촉구했다. 1930년대 초 사회복음에 입각하여 ‘선교의 재고’(Re-Thinking Missions)를 주장하는 진보세력이 물의를 일으키자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보수진영에서는 복음전파를 지상명분으로 내세워 점차 기독교의 사회 진출을 금하는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었다.<sup>40</sup> 문필가 이광수는 이미 191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의 사회진출이 퇴보하는 현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찌감치 1917년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을 「青春」에 기고하여 한국교회가 구령 사역에만 진력할 뿐 사회 현장을 외면하고 금세를 무시하는 태도, 교역자들의 무지함, 무속신앙 전락 등 부조리한 현상들을 초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sup>41</sup> 1920년대 문화정치가 내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정면대결을 펼치며 향후 기독교를 대신하여 새롭게 사회를 구원할 체제라고 뚝뚝하게 호언장담했던 것도 기독교의 이러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42</sup> 바로 이 무렵 김필수는 YMCA에 몸담아 직접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YMCA 전도단 순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금주, 금연, 절제, 물산장려운동 등 민족 계몽운동에 솔선수범했다. 그가 적극적으로 계몽운동을 선도했던 것은 복음과 구령사역을 중시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사회현장을 등한시한 1920년대 장로교의 일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 IV. 나가는 말

39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64.

40 1933년에 발표된 문헌 *Re-Thinking Missions*는 한국교회에 자유주의신학이 대두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William Ernest Hocking, *Re-Thinking missions: a layme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cf. 안수강, “한치진의 『基督敎人生觀』을 통해서 본 1930년대 한국교회상”,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6권(2017), 270;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7), 59-60.

41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青春』제11권(1917), 82-83.

42 cf.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376-77.

지금까지 김필수 목사의 “球上無比의 紀念”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그의 성찬관을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목회 행적이나 가시적 공헌보다는 순수하게 신학적 관점에서 성찬예식의 ‘교의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고찰했다.

첫째, 성찬예식의 교의적 함의로서 이 성찬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대속을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점, 보편적 교회로서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해야 한다는 도식으로서 ‘운’(οὖν, therefore)의 교훈을 보여준다는 점으로 집약된다. ① 예수 그리스도의 ‘대 인격’은 무죄성과 대속에 직결된다. 김필수는 무엇보다도 무흠하신 그리스도의 대 인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대속의 원초적 차원 그 자체를 강조하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그의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하심(대 인격)→대속의 죽음(살과 피)→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음적 관점의 정형화된 도식을 보여준다. ② 성찬예식은 교회의 보편성과 일체성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 즉 성찬예식이 보편적 교회를 지지하는 최상의 증표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김필수는 지상의 흩어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보편성과 일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 인격은 무죄성이고, 그 무죄성에 의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희생양이 되실 수 있었다는 복음적 관점이 교회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중추적 핵이 된다. 결국 그가 생각하는 교회의 보편성과 일체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저로 한 복음적 관점이 단초가 된다. ③ 성찬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운’(οὖν)의 교훈을 담는다. 이 논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마땅히 땀과 눈물로 보답해야 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그는 신자들이 구원을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며 은혜에 사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성찬예식의 실천적 함의는 ‘참회의 삶’, ‘주님을 위한 순교의 삶’, 그리고 ‘이타의 삶’ 등 세 방면에서 두드러진다. ① 성찬예식을 통해 참회의 결단을 독려했다. 그는 성찬예식에 대해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신자상을 결단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또한 주목할 점으로서, 이 회개와 관련하여 신자 자신이 행한 범죄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극복하고 척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② 성찬예식을 통해 주님을 위한 순교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순교, 가난에 허덕이는 한국인 목회자들, 과거 30여년에 걸친 기독교 핍박 역사를 되돌아보며 신자들이 성찬예식을 통해 순교의 삶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③ 성찬예식을 통해 이타의 헌신적인 삶을 결단할 것을 교훈했다. 김필수는 특별히 적용적 관점에서 사회에 침투하여 확산해가는 이타의 헌신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현장에서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빈천한 계층을 염두에 두어 고아원과 구빈원 확충, 나병원 설립 등을 호소했고 모든 신자들이 사회현장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타의 선을 실천하는 신자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필수 목사는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목회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YMCA 청년 지도자로서, 장로회 총회 첫 한국인 총회장으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일제의 정략적 문화정치가 단행되던 무렵에는 “球上無比의 紀念” 설교를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참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순교의 삶, 고통당하는 사회를 품어줄 수 있는 이타의 헌신적 삶을 교훈하여 이상적인 신자상을 정립하도록 교훈했다. 비록 단편적인 문헌이지만 그의 성찬관을 살펴볼 수 있는 유작 “球上無比의 紀念”은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이 어떠한 신앙을 추구해야 하고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며 헌신해야 하는지를 인도해주는 영적 자산이 된다. 이후 김필수 목사가 남긴 신학관련 문헌들을 발굴하여 더욱 확장된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Vol. III) and The Epistles of James and Jude*. trans. A. W. Morris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trans. John W. Fras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 Choi, Jai Keun. *Early Catholicism in Korea*. Seoul: Handl Publishing House, 2005.
- Cyprianus, Caecilius. “The Unity of the Catholicism”. trans. Justin McCann in *Early Latin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124-142.
- Greenfield, William. *The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 Hocking, William Ernest. *Re-Thinking missions: a layme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 Irenaus. “Against Heresies”. trans. Cyril Charles Richardson in *Early Christian Father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358-397.
- Küng, Hans. *The Church*. New York: Sheed and Ward, 1967.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 Melanchthon, Philip. *Commentary on Romans*. trans. Fred Kramer.

-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2.
-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7.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김영수. “이 影印本을 내면서”. 한석원 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영인본 서지정보 뒷면.
-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한석원 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58-66.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도식. 『가톨릭 사상강좌』.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5.
- 안수강. “신사참배 회개론 유형별 연구”. 『한국개혁신학』 제42권(2014), 38-72.
- \_\_\_\_\_.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의 ‘사적’ 문헌을 통해서 본 교육선교”.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3권(2016): 93-146.
- \_\_\_\_\_. “알렌의 일기를 통해서 본 제중원(濟衆院) 의료선교사역—의료사역의 ‘순항과 난항,’ ‘선교사적(宣敎史的)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0권(2016), 93-130.
- \_\_\_\_\_. “李樹廷의 「信仰告白書」와 「宣敎師派送呼訴文」 문헌 분석”.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3권(2012), 149-214.
- \_\_\_\_\_. “한치진의 『基督教人生觀』을 통해서 본 1930년대 한국교회상”.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6권(2017), 241-285.
- 양전백 외 2인.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下)』 이교남 역.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敎會의 欠點”. 『靑春』 제11권(1917), 76-83.
- 이재영 편.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무국, 2006.
- 차재명.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上)』. 京城: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1928.
- 한경국.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61권(2018), 147-174.
- 한석원. “責任의 自覺”. 한석원 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1-14.

한석원 편. 『宗教界 諸名士 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Abstract]

An Analysis of Rev. Pil-Su Kim's 'the View of Christian Eucharist': Focused on His "The Greatest Commemoration"(1922)

Su Kang Ahn

(Baekseo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Rev. Pil-Su Kim's 'the view of Christian Eucharist' in his sermon "The Greatest Commemoration". This text is based on Luke 22:19 and 1Corinthians 11:22-24. Kim's view of Christian Eucharist is based solely on his work "The Greatest Commemoration" published in *Jonggyogyoei Jemyeongsa Gangyeonjip*(1922).

The important concepts of Pil-Su Kim's 'the view of Christian Eucharis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attempted to explain the basic symbolism of Christian Eucharist such as ① the innocence of Jesus Christ and His atonement for the chosen people, ② the true identity of one church(the universality of the church), ③ the lessons of the conjunction 'therefore'(οὖν: "Therefore I want to return Your grace!"), and so on.

Second, I focused on practical implication of Christian Eucharist such as ① perfect repentance in the presence of God, ② the life of martyrdom for the Lord Jesus Christ, ③ the altruistic and sacrificial life for others, and so forth.

In addition, I suggest future extensions of this research into Pil-Su Kim's other themes such as 'the youth movement of YMCA', 'social movement and enlightenment movement', 'the view of pastoral ethics', 'publishing activities', and so on.

**Key Words:** Pil-Su Kim, The Greatest Commemoration, Christian Eucharist, Monument, Devotion, Martyrdom